

주일 낮 예배

인도	1부 07:00 이서구 목사	2부 09:10 김선우 목사	3부 11:20 신경민 목사
	4부 13:30 신동진 목사	5부 16:30 황대석 목사	
* 예배 선포	인도자		
* 주기도문찬양	다같이		
* 예배로 부름	인도자		
* 찬송	1장 다같이		
* 교독문			

인도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회중 :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도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회중 :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도 :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회중 :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같이 :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멘-

* 감사찬회기도	다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70장(통 455장) 다같이		
기도	1부 박노숙 은퇴장로	2부 양홍운 집사(2부 예배위 분부장)	
	3부 김중식 장로(장학위원회 위원장)	4부 박수복 권사(권사회 상임총무)	
	5부 김상범 집사(5부 찬양대 부대장)		

성경봉독	1부	심재근 집사 김위연 집사
	2부	정재천 집사 김은영 집사
	3부	정승원 집사 조여정 집사
	4부	양혁준 집사 김선아 집사
	5부	정기영 성도 홍예진 성도

교회소식 김하나 목사

특순	1부 유재언 성도 서예은 성도
	2부 김도준 집사 김경아 집사
	3부 김요한 집사
	4부 박웅철 집사 이재영 성도
	5부 양현준 성도 정서로 성도

찬양 찬양대

설교 **팔복의 마음가짐** 김하나 목사

찬송	401장(통 457장)	다같이
* 헌금	“우리에게 향하신”	다같이
* 새가족 환영·친교		다같이
* 송영		다같이
* 축도		김하나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1부 이도길 원로장로 2부 조병욱 집사 3부 김익희 장로
 4부 나혜신 권사 5부 신동일 집사

주일 찬양 예배

오후 7:00	인도 : 손지목 목사
성경봉독	수 2:9-11, 18, 21, 24 인도자
특순	① 청년부 임원단 ② 젊은가정(J-House) 임원단
찬양	거룩한 성 기도열심히하는 찬양대 (Stephen Adams)
설교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가! 김병삼 목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 류현웅 목사
성경봉독	욥 38:1-3 인도자
특순	① 유학생기도회(영상) ② 전임전도사 부부
찬양	부흥 교회사랑하는 찬양대 (조상욱 편곡)
설교	나타나신 하나님 김하나 목사

새벽기도회

1부 05:00	2부 06:00	3부 07:00	4부 08:30	(주일 05:30)		
	1.31(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1부	-					(06:00)
2부	-	주형란 권사	신수경 집사	강인중 집사	이문영 집사	(07:30)
3부	-					(09:00)
4부	-					-

안내: 에스겔 2 에스겔 3 히스기야 1 히스기야 2 히스기야 3 히스기야 4

새가족등록

(교구 - 등록번호 / 등록자 / 인도자)

11-0088 / 최정자 / 채문개	41-0094 / 강희정 / -	53-0100 / 이민혁 / 이 성
22-0089 / 지점분 / 박순옥	41-0095 / 이미영 / 전윤희	63-0101 / 고예나 / -
23-0090 / 황슬기 / -	51-0096 / 김민아 / 안성원	63-0102 / 연규진 / 채문개
24-0091 / 류희정 / 이영란	51-0097 / 박소이 / 안성원	65-0103 / 강명희 / -
32-0092 / 이선정 / 장혜숙	52-0098 / 김주삼 / 김희동	65-0104 / 이예진 / 이 성
32-0093 / 황금자 / -	53-0099 / 정용준 / -	

교우소식

출산	
11020	홍나리(지성은) 집사 득녀
54090	전효정(유성진) 집사 득남
63041	김주영(김용현) 집사 득녀

소천	
12089, 23086, 63035	강신희 집사(강남실 권사), 강신애 권사(이월형 장로), 강신옥 집사(박희옥 권사) 모친 故 김양자 권사
32003	조은희 권사(배연덕 집사) 모친
55043	이은숙 권사 부군 故 김용진 집사
21090	이인숙 집사(전원식 성도) 모친
61046	이정희 권사(이관교 집사) 모친 故 박양임 권사
23106	임상재 집사(신은식 권사) 모친
61105	김효순 권사 부군 故 박종길 집사
23109	조희숙 권사(강종섭 집사) 모친 故 김소순 권사
65046	양정임 집사(최규종 성도) 모친

개업	
14067	정정희(김종귀) 집사 - 하남시 조정대로 150 지122호
	30년 전통감자탕
34046	이월서(이영송) 집사 - 강동구 양재대로 136길 12
	루디아 패션 010-2169-8480
44004	박소영 집사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13 J타워 4층 404호
	시온 필라테스 010-6484-7828
44024	최애경(정병추) 집사 - 남양주시 사릉로 34번길 24 105호
	경기부동산 031-511-8485
52091	남궁은 집사(김순이 권사) - 하남시 감일남로 56
	유디알 멤버스 올림픽 감일골프 아카데미 010-7149-0753

입대	
12095	김학산 - 박인경(김승경) 집사 차남 육군 1월 17일

결혼	
44095	신랑 김기용 ♥ 신부 김한글 김병철 집사 · 이선 집사 장남 2월 5일(토) 오전 11시 웨딩더낙원 2층 베일리홀
24050	신랑 이수현 ♥ 신부 김영신 이준호 성도 · 임명진 성도 장남 2월 5일(토) 오후 3시 노블발렌티 샵성
33020	신랑 김태은 ♥ 신부 고현민 고영달 집사 · 우미선 집사 장녀 2월 5일(토) 오후 12시 30분 롯데호텔월드 B1F 사파이어볼룸
33106	신랑 강진구 ♥ 신부 임성은 박인정 집사 장녀 2월 5일(토) 오후 5시 루벨 브라이드 앤 그룸 35층

01. 목회권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부흥과 회복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02. 예 배

주일찬양예배는 '부흥과 회복'의 주제로 드리며, 말씀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께서 전해드립니다.

03. 임 명

2022년 은퇴안수집사회, 은퇴권사회, 장학위원회가 임명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msch.or.kr).

04. 명성장학관

2022년 명성장학관(서울, 전주, 광주, 순천, 대구, 부산) 입학생을 2.21(월)까지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① 농어촌,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② 기타 대학생
- 신청서류: 지방장학관은 교회홈페이지(www.msch.or.kr), 서울장학관은 명성복지재단(www.msw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학부 ☎ 02-6930-9508

05. 알 림

- ①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는 베들레헬성전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www.msch.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② 실로암서점(살롬관 1층)에 신앙 도서와 기독교 용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2022년도 총회 목사고시를 위한 노회면접이 2.11(금) 오후 1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2.4(금)까지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울동남노회 ☎ 02-476-2337

금주 신생아	명성교회 출생 신생아(2022년 1월 - 현재)
3명	총 17명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 묵상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안함뿐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불편한 삶으로 인도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

유다의 홀통했던 왕 요시아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헐었으며,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아가 본격적인 통치에 앞서 가장 먼저 여호와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허물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진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이 풍성해 보이는 시대를 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 마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같이 살아갑니다. 외적 풍성함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선택하는 신앙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는 위험성이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험으로 나가게 합니다.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받은 다음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또 위험과 환란과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지키게 하는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위험한 말씀의 발견과 결심이 있기를 바라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이들

원로목사 김삼환	담임목사 김하나	협동목사 김도훈 노영상 최윤배	교육목사 김은혜 이승갑
목사 권삼열 김남수 김동민 김동진 김득열 김병규 김봉기 김석호 김선우 김요한 김우종 김은호 김은영 김은자 김준곤 김준환 김춘희 김희영 류현웅 문명석 문승진 박영호 박요한 박현규 방유경 배성현 백재용 서찬성 손원재 손지목 신경민 신동신 신충현 여주형 우종협 유태규 윤석진 이경민 이대선 이덕기 이서구 이정수 이지명 임용섭 임은묵 장중민 정구일 정홍배 조성민 조재영 천혜림 최대열 최애녹 한바울 허승환 황대석 황정준		전도사 권예찬 권오병 권혁현 김경환 김다림 김동욱 김민을 박경애 박고운 박근우 박보하 박우진 송한솔 신재희 오대용 이경환 이상인 이성 이울관 이은세 이재민 이주현 임기도 임지환 정구현 편경호 한정민	교육전도사 김석현 김승택 김용문 김용기 김윤영 김준영 김하늘 문태은 박경민 박재현 박종근 박초롱 손찬영 송영호 이성현 이준민 이준식 최하경
		디아스포라 박경희(태국) 정 북(중국)	

